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재능나눔 봉사단 '사랑재'와 함께하는 '가발 나눔'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7월 11일 3층 회의실에서 반갑다 연우야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단장 백동열)와 함께 암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가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암 환우들이 직접 참석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가발을 직접 골라 착용해 보고 사랑재 회원들 도움으로 가발길이 커트까지 할 수 있어 암 환우들이 모처럼 밝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암 환우는 "아침까지도 통증 때문에 짜증스럽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고 나니 통증도 없는 것 같고 기분도 정말 좋아졌다"며 밝게 웃었다.



02 금강선원 청소년부, '저소득 환자 후원금' 전달

금강선원 청소년부 학생들이 '석가탄신일 맞이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서 모은 수익금 100만원을 7월 13일 동국대학교병원에 전달하였다.

금강선원 청소년부 학생들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원을 찾아와 저소득층 환우에게 써 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후원금은 금강선원 청소년부 학생들이 불기 2557년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쿠키를 팔아 모은 성금으로 후원금은 병원 내 사회사업실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3 소화기내과-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소화기내과는 7월 6일 지역사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과 최신 지견을 다뤘고, 인근 지역 병·의원에서 80여명의 개원의가 참석했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인근 지역 병·의원과 더욱 긴밀한 진료 협력으로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04 동국대학교 법인산하 중·고등학교 한방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5개 학교(동국대부속중·고등학교, 동국대부속여중·고등학교, 동국대부속영석고등학교 등)에서 한방건강강좌를 개최했다.

5월 27일부터 7월 10까지 총 5회 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는 학생들의 체질별 건강관리, 학습법, 보양법 등의 내용으로 김동일 한방병원장이 직접 강연하여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강좌에 참가한 학부모는 "학업으로 지친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배운 건강관리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05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하계 선택지원 실습 및 동국 수련 장학금 전달

간호부는 2014년 본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에 걸쳐 선택지원 실습을 실시하고 이중 우수학생 2명에게 '동국 수련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하계 선택지원 실습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12명의 간호학생들은 각각 간호단위에 배치되어 프리셉터십을 이용한 교육을 받으며, 현장에서의 임상실무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12명 전원이 합격했다.

곽윤희 간호부장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동국대병원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06 무더위를 이기는 맛있는 방법 - 초복, 중복 신메뉴 개발

영양팀에서는 복날 더위를 막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초, 중복 신메뉴를 개발하여 교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삼복이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며, 예전부터 복날에는 더위를 막고 보신을 위해서 삼계탕이나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 올해 복날에는 교직원 보양을 위해 7월 13일 초복에는 '육개장 칼국수', 7월 23일 중복에는 '초계국수'를 새롭게 준비했다. 영양팀 직원들은 "이번에 준비한 복날 신메뉴로 입맛도 살리고 몸에 활력도 불어넣어 다가오는 무더위를 잘 이겨낼 길 바란다"고 전했다.



07 약제팀, MBC FM4U '로이킴, 정준영의 친한 친구' 라디오프로그램 탐방

약제팀 최윤영 약사 외 7명은 7월 12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친한 친구 버스킹 3부'에 초대되어 여의도 MBC 라디오 방송국에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FM 91.9에서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청취자 중 직장 단체를 대상으로 스튜디오를 방문해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코너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약제팀으로 응모한 사연이 채택되어 MBC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친한 친구'는 슈퍼스타 K4에 나왔던 정준영, 로이킴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날은 가수 주니엘, 일락, 유승우 군이 출연해 라디오 부스에서 부르는 라이브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스튜디오 안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켜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날 방송은 유스트림으로 생중계되어 본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라디오 다시 듣기'나 '보이는 라디오'로도 다시 볼 수 있다.



병원은 어느 한 부서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부서는 뭐하는 부서지? 일은 하고 있나?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특히 특수검사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문은 닫혀있지만 그 안에서 환자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환자와 함께 생명을 끈을 놓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을 톡톡 인터뷰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심장혈관센터
박 중 현

- **본인소개?** 68년생, 고향은 부여, 아들(초6)과 안경사인 배우자와 함께 일산동에서 살고 있는 심혈관조영실의 방사선사 박종현입니다.(아내 등 떠밀어 안경원 개원이 목표입니다.)
- **업무소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의 조영술 및 시술을 돕는 일을 합니다.
-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 누구에게나 나와 나의 가족을 대하듯 한결 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
- **오늘 당장 번개모임을 한다면 참석예상 인원?** 3명은 확실하다. (한 사람을 사귀어도 깊이 있게 사귀는 성격임.)
- **결인사?** 개원한지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의 설레이는 마음가짐이 저 부터도 조금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교직원 분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p.s. 인터뷰 당일 필자가 심혈관조형실을 찾았을때 외래에 진료 대기중이던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 시술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